

역대급 패밀리EV...스포티지 명성 잇는다

기아 오토랜드광주 첫 전용 전기차

넉넉한 실내·안전·주행성능 돋보여

더 기아 EV5 타보니

안락하고 견고한 패밀리카. 기아의 순수 전기차 브랜드 'EV 시리즈'의 첫 번째 준중형 SUV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더 기아 EV5(이하 EV5)'를 만난 시승자들의 공통된 평가다.

특히 기아 오토랜드광주가 처음 생산하는 전용 전기차 EV5는 넉넉한 공간에 실용·안전성을 뽐내며 기아의 수출 효자인 스포티지의 계보를 이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EV5를 타고 지난달 28일 기아 오토랜드광주 정문에서 출발해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일원까지 왕복 60km 구간을 달렸다.

첫 대면한 EV5는 깔끔하면서도 강인한 모습이었다. 정통 SUV 바디를 적용한 패밀리 전용 전기차답게 박시하면서도 역동적인 실루엣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전면부는 와이드하고 견고한 스킵드 플레이트와 보닛이 강인한 인상을 주며 수직으로 배열된 LED 헤드램프와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된 주간주행등(DRL)은 EV 대중화 대표 모델다운 세련됨과 당당함을 보여준다.



측면부는 박시한 실루엣의 테일게이트와 D필러를 통해 여유로운 후석 공간감과 넓은 러기지 공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사각 펜더로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구현했다. 후면부는 수직, 수평으로 길게 뻗은 리어램프 램프와 깔끔하고 넓은 테일게이트 디자인으로 SUV의 세련되고 강인한 느낌을 살렸다.

실내는 전장 4610mm, 전폭 1875mm, 전고 1675mm, 축간거리 2750mm로 기존 준중형 전기차 대비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갖췄다. 특히 1041mm의 2열 레그룸은 동급 최고 수준이다.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을 달리고 있는 패밀리 준중형 전기 SUV '더 기아 EV5'. 기아 제공

주행 성능도 수준급이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전기차 특유의 순간 돌파력이 느껴지지만 지나치게 튀지 않고 부드럽게 속도를 높였다.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고속 주행에서도 편안했다.

최대 주행거리는 1회 충전 시 460km, 광주에서 주행 가능 거리 379km로 출발한 차

량은 편도 30km를 달리고 안정적으로 주행 가능 거리 340km를 유지했다. 350kW급 충전기로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30분이 소요된다.

탑승객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다양한 편의 사양도 매력적이다. 1열 편안한 휴식 자세를 돕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비롯해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가 장착됐으며 센

터 콘솔은 1열과 2열 탑승객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마련했다.

2열은 폴플랫 시트가 적용돼 고객이 러기지 부분과 연결해 사용할 경우 일상은 물론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2열에 트레이를 슬라이딩 방식으로 여닫을 수 있는 확장형 센터콘솔을 적용했으며, 슬라이딩 방식의

커버를 통해 컵홀더로 사용할 있는 센터 슬라이딩 커버 암레스트를 장착했다.

뿐만 아니라 운전석, 조수석, 2열의 냉난방 기능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3존 공조 컨트롤러를 탑재했으며 1열 시트 후면부에 2열 탑승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시트백 테이블을 적용해 실용성을 높였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현대차·기아, '2025 코리아세일페스타' 참가

현대차·기아는 국내 최대 쇼핑 축제 '2025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가해 11월 한 달간 대규모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승용·레저용 차량(RV) 등 12개 차종, 1만2000여대를 대상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 대상은 쏘나타, 투싼, 그랜저, 쏘타페, 아이오닉9 등이다.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G80, GV70, GV80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할인 금액은 차종별로 100~500만원 정도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차량 계약은

차종별 최대 500만원·3~5% 할인 등 혜택



차종별 한정 수량에 대해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카마스터를 통해 차량 견적을 확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전자 TV, 스타일러 등 경품을 제

공할 계획이다.

기아는 오는 10일까지를 집중 할인 기간으로 지정하고 셀토스, 스포티지, 쏘렌토, 카니발, K5, K8, 타스만, 니로 HEV, 봉고 LPG, K9 등 10개 차종에

3%의 할인을 제공한다. 또 전기차 EV3, EV4, EV9 등 3개 차종에 대해서는 할인 폭을 5%로 높인다.

이번 특별 할인은 5000대 한정으로 선착순으로 실시된다. 또 집중 할인 기간 내 계약하고 당일까지 출고를 완료한 고객에게 적용된다.

또 기아는 11월 한 달간 K5, K8, 타스만, 니로 HEV, 봉고 LPG, K9 등 6개 차종을 대상으로 구매지원금 50만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전국 지점과 대리점, 드라이빙센터를 방문해 비저된 QR코드로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 고객을 추첨해 경품도 주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기아는 참여 고객 중 총 3000명을 추첨해 계약금 지원 쿠폰 10만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미래 모빌리티 개발 아이디어 찾습니다”

현대차그룹, 24일까지 대학 연구진 '미래기술 공모과제' 접수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혁신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4일까지 국내외 대학 연구진을 상대로 '미래기술공모과제'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미래 모빌리티 개발 실무에 적용하고,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다.

지원 자격은 올해 11월 기준 국내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이다. 대상자는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제안서 양식을 활용해 연구과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과제는 전동화,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자율주행, 정보기술(IT), 전자, 디지털 엔지니어링, 로보틱스, 탄소중립, 재료, 비온드 모빌리티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연계된 11개 주제로 구성됐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업계·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층 평가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 과제에는 최대 6000만원의 연구비가 각각 지원된다. 합격자들은 약 8개월간 제안한 아이디어의 기술 타당성 검증(PoC)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유의미한 성과를 낸 지원자에게는 현대차·기아 연구원과 심화 연구 과제를 진행할 기회도 제공한다. 정현아 기자 aura@

PRIMUM LIGHTING SYSTEM

EXVISTA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 그 빛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력
빛과 기술을 창조하는 진우엘텍입니다

국내유일 자체생산 및 직접시공 스포츠조명엔 진우엘텍!

“ 고객이 원하는 고객을 위한 기업 진우엘텍입니다 ”



진우엘텍 ONE-STOP 서비스

자사의 원스탑 서비스 (One-Stop Service) 를 통해 고객은 조명의 후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처리되는 간편한 시스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공정은 직접 처리되는 만큼 서로 정확하게 일원화 되어있어 시공이 끝난 후에도 완벽한 사후 유지관리 가능합니다.

01

고객 상담
및 의뢰

>

02

현장 답사
및 설계

>

03

제품
생산

>

04

직접
시공

>

05

유지
관리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301동 1008호
공장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90
홈페이지 : www.sports-lighting.co.kr

조명설계 및 제품문의

032.329.7160

KOREA NO.1 SPORTS LIGHTING
JINWOO ELTEC